

[기획] >> 3면
학내 동아리 공간 문제

[심층] >> 7면
전세보증사기에 관한 인식

[사회] >> 8면
스토킹 처벌법

[인물] >> 12면
한길통상 이영우 회장을 만나다



이번 해 2학기부터 우리학교 양 캠퍼스의 학생식당 음식 가격이 전체적으로 인상됐다. 학생식당 음식 가격 인상에 대해 양 캠퍼스 학생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학교의 △학생식당 음식 가격 인상 배경△학내 구성원의 엇갈린 목소리△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4면에서 계속

글 · 사진 조수빈 기자 05subin@hufs.ac.kr

우리학교, 한국장학재단과 글로벌 근로 장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해

지난 14일 우리학교와 한국장학재단은 '글로벌 근로 장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한국장학재단 국가 근로 장학제도의 일환으로 대외관 등의 공공기관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이 교외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학교 학생이 대외관과 같은 글로벌 근로 기관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유이원 한국장학재단 국민소통부 국제협력관 이하 유 국제협력관은 "다양한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에게 진로 및 목표와 연관된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습한 전공 지식을 실무에서 적용해 볼 수 있고 근로 기관은 글로벌 인재의 능력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학교 학생과 한국장학재단 사이에 나타날 상승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우리학교와 한국장학재단은 협약을 통해 △지원△행정△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양질의 근로 장학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유 국제협력관은 "기존의 근로 장학은 진로 개발

보단 장학금 지급에만 집중돼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 이 진로와 밀접한 영역의 업무 경험을 쌓아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재학생 주형민(동유럽·세크어 20) 씨는 "그동안 소수어를 활용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넓은 영역에서 전공 언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한 "앞으로도 학생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근로 장학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장학제도는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직업체험 기회 제공△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매달 근로시간과 근로지 구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22일부터 우리학교 양 캠퍼스는 이번 학기 국가근로 장학생을 선착순으로 추가모집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이번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학자금 지원 구간 8분위 이하 등 한국장학재단이 규정한 국가근로장학금 장학생 기본요건에 속하는 재학생이다.

지명원 기자 04jimw@hufs.ac.kr

우리학교, 본투글로벌센터와 업무 협약 체결해

지난 13일 우리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본투글로벌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본투글로벌센터는 2013년 개소 이래 200여개의 창업팀 및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고 해외법인 112건을 설립하며 직·간접적으로 국내외 약 3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낸 바 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인재 육성과 기업-인재 연결△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해외 거점 구축△비정규직과 창업팀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총 3가지 분야에 대한 업무 협력을 위해 체결됐다. 이번 업무협약 식엔 우리학교의 △가정준 대외협력처장△김민정 학생·인재개발처장△박정은 총장△장봉의 마태위원회 위원장 이하 장 위원장△장태엽 재무·대외부총장과 본투글로벌센터의 △김종갑 센터장△장물 협력사업 개발팀장 이하 장 팀장△장석진 총괄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대해 장 위원장은 "본투글로벌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경험△글로벌 스타트업 네트워크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우리학교 학생들의 첨단기술기반 창업에 큰 변화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업무 협약으로 우리학교는 창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 팀장은 "국내 최고의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인 우리학교와의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이 추후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혁신 창업팀 인큐베이션과 글로벌 역량 강화-글로벌 성장' 지원 체계 구축과 운영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성민(서양어·포르투갈어 20)씨는 "우리학교와 본투글로벌센터의 업무 협약 체결이 우리학교 학생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김예주 기자 05yejoo@hufs.ac.kr

한국외대 서울 학생상담센터에서
**또래상담이 필요한
외대인을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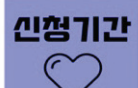
또래상담자는 총 10시간의 상담교육을 이수한 한국외대 학생들로,
본 프로그램은 상담기술과 상담자 개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학우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제공하며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외대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대상 또래상담이 필요한 한국외대 학우라면 누구나



신청방식 신청자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상담가와 1:1 매칭, 개별 연락 후 상담 진행



신청기간 2022학년도 2학기 중 상시모집



신청방법 상단 QR코드 인식/하기 링크 접속 후 구글폼 작성
<https://forms.gle/6KS9Eu7tafMG8GSJ8>



문의 02-2173-2562, sccs@hufs.ac.kr
(국제학사 345호 학생상담센터)

우리학교 아시아언어문화대학·일본학대학·중국학대학 교류전 ‘2022 아시안게임’ 개최돼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오바마홀△운동장△잔디광장에서 △아시아언어문화대학△일본학대학△중국학대학 내 총 12개 학과의 교류 행사인 ‘2022 아시안게임(이하 아시안게임)’이 진행됐다. ‘열대야·열정의 대륙 아시아 가자!’란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2년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교류가 부족했던 세 단과대학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의 창을 만들고자 개최됐다.

행사는 △무대가요제△스포츠친구매칭△E-스포츠 부문으로 구성됐다. 친구매칭은 세 단과대 학생 총 150명을 모집해 여섯 명씩 조를 나눠 친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스포츠 부문엔 △계주△농구△피구△축구 총 4개의 종목이 포함됐으며 E-스포츠 부문엔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이하 롤)△포켓몬스터(Fall Guys)△피파온라인4(FIFA online 4)가 포함됐다. 대회 첫날인 21일엔 운동장에서 개막식과 계주 및 축구 4강이 진행됐으며 일본학대학이 계주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둘째 날인 22일엔 △농구 4강△무대가요제△롤 예

선△피파온라인 4 예선이 진행됐으며 아랍어과 학생들로 구성된 10팀이 가수 ‘10cm’의 ‘그라데이션’을 불러 무대가요제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마지막 날인 23일엔 △농구 3, 4위전 및 결승△축구 3, 4위전 및 결승△피구 대항전△롤 결선△포켓몬스터 결선△피파온라인4 결선이 진행된 후 폐막식으로 대회가 마무리됐다. 이날 스포츠 부문 결승에선 △피구 아시아언어문화대학 2팀△농구 아랍어과△축구 중



▲지난 21일 열린 ‘2022 아시안게임’ 무대가요제 진행 모습

국학대학 축구 소모임 ‘페이후’가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E-스포츠 부문에선 △롤 베트남 어과△피파온라인 4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포켓몬스터 융합일본지역 전공 학생이 각 1위를 거머쥐었다. 피구 대항전에서 아시아언어문화대학 2팀 소속으로 우승한 정효림(아

통해 일본학대학 학우들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시안게임 같은 교류전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전했다.

행사 기획에 참여한 정지호(일본·용일지 19) 일본학대학 제13대 학생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행사 및 학내 교류 기회가 많이 줄어든 학우들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본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세 단과대 학우들 간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최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달 설캠에선 △경영대학·국제대학·상경대학 교류전 ‘BEBADIS’△사범대학·사회과학대학·영어대학 교류전 ‘컬러풀’△ID학부·IT학부의 교류전 ‘출장 티디야’가 진행됐다. 또한 글로벌캠퍼스에선 경성대학·인문대학·융합인재대학의 교류전 ‘경인융체전’이 진행되는 등 특정 단과대 간 교류전이 다수 개최됐다.

지명원 기자 04jimw@hufs.ac.kr

우리학교 도서관, 산악인 엄홍길 대장 명사 초청 강연 개최해

지난 20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스마트 도서관 5층 컨퍼런스룸에서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하 엄 대장) 명사 초청 강연’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불굴의 도전정신’이란 주제로 진행됐으며 △교수진△교직원△산악부 부원△학생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인사말△축사△연사소개△기념촬영△강연△질의응답△저서사인△상품추첨△환송 순으로 진행됐다. 축사를 맡은 변해철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 자리를 통해 우리학교 학생들이 막다른 길을 마주할 때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용기를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를 총괄한 조하문 도서관장 또한 축사를 맡아 “도서관이란 공간이 문화공간이 되길 바라 우리학교 동문 중 명사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해야겠다 생각을 했다”며 엄대

장 초청의 이유를 밝혔다.

강연을 맡은 엄 대장(동양학·중어 02)은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좌를 완등한 산악인이다. 엄 대장은 강연을 통해 △히말라야 등반 계기△첫 완등 당시의 기쁨△등반 과정에서 동료들을 잃은 슬픔△부상으로 발가락을 절단한 이야기△서양인들과 팀을 이뤄 등반하려 했을 때의 두려움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22년간 이어온 38번의 히말라야 도전 과정에 대해 전했다. 이를



▲산악인 엄홍길 대장 명사초청강연 모습 (출처: 우리학교 도서관)

통해 “도전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며 “세계를 향해서 힘찬 도전을 하기 바란다”란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강연에 참석한 이주성(사범·한교 17) 씨는 “평소 꿈을 위해 도전하는 엄 대장의 모습에 존경심을 느꼈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행사를 기획했다”며 “학생들이 명사를 만나서 실패한 경험도 들으며 도전하는 자세를 배웠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연을 진행한 엄 대장은 히말라야를 오르내리며 산 속 오지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엄홍길 휴먼재단(이하 휴먼재단)을 설립했다. 휴먼재단은 2009년부터 네팔의 오지 마을에 17개의 휴먼스쿨을 완공했으며 현재도 네팔에 세 곳의 학교를 추가적으로 짓고 있는 중이다.

김예주 기자 05yejoo@hufs.ac.kr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학생 지도 상담 우수 학과(부) 및 교원 시상식 진행해

지난 14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본관 이덕선 회의실과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백년관 중회의실에서 학생 지도 상담 우수 학과(부) 및 교원 시상식이 진행됐다. 학생 지도 상담 우수 학과(부)로 설캠의 아랍어과와 글캠의 영어통번역학부가 선정됐다. 학생 지도 상담 우수 교원엔 △최우수△우수△장려 부문으로 각 캠퍼스당 1명씩 총 6명의 교수가 선정됐다. 이에 설캠에선 △최우수 윤은경 아랍어과 교수(이하 윤 교수)△우수 고태진 인도어과 교수△장려 임소라 포르투갈어과 교수가 수상했으며 글캠에선 △최우수 홍성민 철학과 교수(이하 홍 교수)△우수 이진아 영어통번역학부 교수△장려 정태용 환경학과 교수가 수상했다. 부상으로 △우수 학부와 우수 교원 최우수 수상 50만원△우수 교원 우수 수상 30만원△우수 교원 장려 수상 20만원이 수여됐다.

학생 지도 상담 우수 학과로 선정된 아랍어과의 학과장이자 우수 교원 최우수 부문을 수상한 윤 교수는 “우리 학과는 평소 교원과 학생들 간 원활한 소통과 유대감 형성을 위해 학생 지도와 상담에 힘써왔다”며 평소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학생들이 △진로△취업△학교 생활 등 다양한 방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학생 지도와 상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생 지도 상담 우수 교원 최우수 부문을 수상한 홍 교수는 “항상 학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며 “어떤 상보다 자랑스럽고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며 교수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예주 기자 05yejoo@hufs.ac.kr

우리학교 제51회 동문기 쟁탈 교내 핸드볼 대회 개최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오바미홀에서 설캠 핸드볼부와 설캠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 흡스포츠(Hufsports)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핸드볼부 동문회가 후원하는 제51회 동문기 쟁탈 교내 핸드볼 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엔 △경영학부△노어과△독일어과△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베트남어과△아시아언어문화대학△태국어과△한국어교육과△ID학부△ROTC가 참가했다. 행사를 총괄 담당한 김광원(사범·프교 20) 흡스포츠 대표(이하 김 대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완화로 3년 만에 동문기 쟁탈 교내 핸드볼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대회 개최 소감을 전했다.

이번 대회는 남자 8팀과 여자 4팀이 참여해 각각 8강과 4강의 단판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각 15분이 주어졌다. 여자부와 남자부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ID학부와 한국어교육과에겐 트로피와 더불어 50

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졌다. 또한 여자부와 남자부에서 각각 2위를 차지한 한국어교육과와 ROTC에겐 각각 트로피와 함께 30만원이 주어졌다.

한국어교육과 여자팀 소속으로 대회에 출전한 김민정(사범·한교 20) 씨는 “함께 훈련을 하며 점차 팀원 모두가 진심으로 핸드볼을 즐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팀원 모두가 최선을 다한 후회없는 경기였다”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지난 22일 진행된 ID학부와 한국어교육과 간의 여자부 결승전 경기를 관람한 우리학교 재학생 이로운(사범·프교 22) 씨는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한편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학우들의 모습을 보고 스포츠맨십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명원 기자 04jimw@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3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2.09.30.(금) ~ 10.07.(금)	2022.11.14.(월) ~ 11.18.(금)
면접전형	2022.10.22.(토) 10:00	2022.12.03.(토) 10:00
합격자 발표	2022.11.04.(금) 16:00 예정	2022.12.16.(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2.11.07.(월) ~ 11.11.(금) 예정	2022.12.19.(월) ~ 12.23.(금) 예정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국어교육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스페인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	•유아교육	
	•수학교육	•상담심리(전문상담교사 2급)		
모집 과정	지원 전공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 외국대학, 독학사는 졸업자에 한해 지원 가능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지원전공의 관련학과(전공)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전공학점 30점 이상 이수자

◆ 우대사항

가. 현직교사 장학금 지급

나. 교원자격증 취득자는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 접수방법

· STEP1 - 인터넷 원서 작성 및 접수(유웨이어플라이Uwayapply.com))
· STEP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일부 전공의 경우 온라인(비대면)면접을 실시 할 수 있음.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입 학 문 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TEL 02)2173-2419 FAX 02)2173-3358
○ 주 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홈페이지 : gse.hufs.ac.kr
○ 이메일 : hufsgs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열악한 학내 동아리 공간, 소통과 개선이 필요할 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5학기 동안 이어진 비대면 생활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학내 동아리도 코로나19 이전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일부 동아리들은 오랜 기간 위축된 동아리의 재활성화를 위해 쾌적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도 불구하고 일부 동아리는 공간대여 문제와 열악한 시설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학교 △동아리 활동의 어려움△학교 측의 공간대여 방식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동아리 활동의 어려움

우리학교엔 다양한 동아리가 존재한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와 글로벌 캠퍼스(이하 글캠)엔 각각 약 60여 개의 중앙동아리가 개설돼 있으며 그중 특수 목적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예체능 동아리는 과반을 차지한다. 가인준 동아리 등 중앙동아리 이외의 동아리를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많아진다. 현재 이러한 예체능 동아리 중 학내 활동이 이뤄지는 일부 동아리는 연습 공간을 둘러싸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반 강의실이 아닌 특수 목적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동아리는 활동의 제약이 크다. 그중 체육계 동아리는 적합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설캠의 중앙동아리 검도부에게 연습 공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내 스포츠인 검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천장 높이를 갖춘 공간에서만 연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도부는 현재 설캠 오바마홀(이하 오바마홀)에서 활동한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만 오바마홀을 대관할 수 있어 연습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자유로운 연습을 위해 지난 학기부터 공간 확보에 힘썼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캠 검도부 부원 A 씨(이하 A 씨)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유보적인 학교 측의 답변에 피로를 느꼈다”며 “오바마홀과 미네르바 헬스장 앞의 빈 공간에서 추가적인 연습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사정이 여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학외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학교 측에서 동아리 운영을 위해 각 동아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는 대부분 한 해 동안 참가하는 대회 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가까운 동대문구 체육관을 빌리는 것 또한 큰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듯 학교 측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용 가능한 예산이 한정적이기에 동아리 활동 공간 확보에 대한 어려움은 여전하다.

중앙동아리 인가를 준비 중인 설캠의 펜싱부 또한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 문제로 고충을 겪었다. 펜싱에서 배우는 동작은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물의 바닥에선 연습하기가 어렵다. 또한 펜싱 연습 공간은 다양한 전자 장비 사용을 위해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원활한 펜싱 연습을 위해선 여러 공간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현재 펜싱부는 교수학습개발원(이하 교개원)의 지하 무용실을 대관해 운동을 진행 중이다. 주 3회 정기 연습이 이뤄지는 가운데 불편을 표하는 부원들도 존재한다. 펜싱부 주장 박재민(상경·경제 14) 씨는 “여름이 오면 무용실은 운동부가 사용하기 열악한 환경이 된다”며 “설치돼 있던 두 대의 선풍기 중 한 대는 바람이 약했고 다른 한 대는 고장이 나 시설관리팀에 에어컨 설치를 문의했으나 시설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무용실은 천장이 낮아 겁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운동하기 적합한 오바마홀의 이용을 희망했지만 펜싱부는 현재 중앙동아리 인가를 받지 못해 중앙동아리에 비해 대관의 어려움이 더 큰 상황이다.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테니스부 ACE(이하 테니스부)는 2019년까지 공학관 옆에 위치한 동아리 코트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활동이 위축되며 코트가 방치됐다. 지난 3년 동안 코트 내 펜스는 노후화되고 코트 위엔 풀이 무성하게 자라났다. 이후 원활한 동아리 활동을 위해 지난해 1학기부터 지속적으로 학교 측에 동아리 코트의 환경 개선을 요구

했다. 그러나 예산 문제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동아리의 역사와 전통이 담겨있는 동아리 코트는 철거 처리될 예정이다. 글캠 테니스부 회장 전영재(글로벌스포츠 21) 씨(이하 전 씨)는 “지난 학기에 학교 측과 현재 공사 중인 국제사회교육원 테니스 코트의 사용권을 넘겨주겠다 논의가 오갔지만 2학기가 시작되고 시설관리팀에 재차 문의한 결과 확실한 대답을 얻지 못했다”며 “테니스 동아리는 지난해부터 둔전역 인근의 포곡읍 체육공원으로 이동해 학외에서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학기부터 지도교수의 복귀로 오전 시간대에 교직원 코트를 사용할 수 있어 지난 학기에 비해 나은 실정이지만 동아리가 목표로 하는 만큼 연습을 진행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공간대여 방식

현재 설캠의 공간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학교에서 규정한 세칙을 준수해 오바마홀 대관을 담당하고 있다. 학내 동아리가 오바마홀을 대관하기 위해선 실내 체육 동아리만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축구나 야구 등 실외에서도 가능한 스포츠 동아리거나 밴드 및 학회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오바마홀 대관 기준은 인원수가 많은 동아리 및 중앙동아리를 우선하고 있다. 지난 학기 말부터 오바마홀 사용이 가능해지자 공운위는 이에 대한 동아리의 수요와 사용 희망 시간대를 조사했다. 이용 시간대의 배정이 끝나면 새로운 조율은 다음 학기에 가능하므로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동아리는 학기 중에 오바마홀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공운위에선 동아리를 위한 시설을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팀과 연결해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설캠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의 경우엔 동아리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공간의 대여료를 교비로 지원하고 있다. 글캠의 스포츠 동아리는 윈스톱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 백년관 운동장을 대관한다. 그런데 그동안 해당 공간의 사용은 ‘흡파’란 명칭의 비공식 협의체를 통해 결정돼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윈스톱 대관 시스템을 통해 시설을 예약한 동아리와 동 시간대 흡파를 통해 일정을 정한 동아리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학생 측은 공통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적합한 공간 확보와 간소한 행정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선출된 박정은 우리학교 총장은 공약으로 오바마홀 체육시설의 개방을 내세웠다. 그리고 지난 5월 실시된 총장과의 대화에서 김봉철 설캠 학생지원처장은 오바마홀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할 것이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설캠 오바마홀 대관을 희망하는 동아리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설캠 펜싱부 부원 이정훈(국제 20) 씨는 “펜싱부의 유일한 활동 무대인 무용실을 대관할 때 행정적 착오로 인해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아 순서가 밀린 경우가 있었다”며 “오바마홀을 비롯한 학교의 시설을 개인 및 동아리에게 평등하게 개방하면서도 도서관 모바일 자리 예약 시스템처럼 행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손쉽게 대관할 수 있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A 씨는 “실내 체육 동아리가 활동 가능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학교와 동연 측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길 희망한다”며 “동아리 활동을 위한 소통과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씨는 “학내 동아리 활동 공간의 원활한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학교와 학생 간 소통의 중요성을 느꼈다”며 “학내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학외에서 연습을 실시하는 동아리에게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늘리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지난 2010년 학내 구성원을 위한 복합체육시설인 류근철 콤플렉스를 완공했다. 카이스트 학생들은 해당 건물이 생기기 이전 체육시설이 부족해 불편함을 겪었으나 류근철 콤플렉스의 완공 이후 농구·배구 등의 구기 종목을 위한 주경기장 및 △골프 학습장△김동원 피트니스 센터△동아리방△무용실△조깅 트랙 등 풍부한 시설을 갖추게 됐다. 또한 지난 2016년 해당 건물엔 실내 압벽장이 설치되는 등 학생들은 더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졌다. 류근철 콤플렉스의 사용은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박운배 한국과학기술원 체육행정실 직원은 “온라인 예약제 도입 이전엔 사용을 원하는 학생이 직접 방문해야만 시설의 사용이 가능해 학교와 학생 모두 번거로움을 느꼈다”며 “온라인 예약제가 실시돼 학교와 학생의 체육 시설물 사용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학생들의 불편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의견을 밝혔다. 설캠 공운위 관계자는 “현재 오바마홀을 사용하는 데 모든 동아리가 원하는 시간을 배정 받을 순 없어 이에 따른 불만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시간대 중에서 동아리별로 희망하는 시간대를 신청받아 그 안에서 시간을 배정하고 있다”며 “사용 가능 요일 및 대여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학기마다 학교 측과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캠 총학 측은 “글캠 동연과의 회의를 통해 동아리 간 주로 갈등이 발생하는 공간인 운동장에 대한 이용 규정을 문서화했다”며 “이번주 내로 해당 문서를 공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무용실 냉방기 설치에 관해 김선규 설캠 시설관리팀 팀장은 “지난 학기 스탠드형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해당 공간을 검토했다”며 “현재는 시설관리팀에 해당 공사를 시행할 예산이 없어 2학기 추경을 신청할 예정이며 추경 예산이 배정될 경우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공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글캠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테니스 코트 개선에 대해 “기숙사 사거리에 위치한 인조 잔디 코트 공사를 10월 이내 완료할 것이다”며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학교의 수업과 동아리 활동 공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설캠 펜싱부는 지난 5월에 열린 남녀대학펜싱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수상했다. 그리고 글캠 테니스부는 지난 8월 개최된 ‘2022 국토정중앙 전국대학동아리테니스대회’에 출전해 256팀 중 공동 3위란 성과를 거뒀다. 학교의 지원 아래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 더욱 큰 결실을 맺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높아지는 학식 가격,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식을 위해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물가가 상승하며 식자재의 가격 역시 전반적으로 인상됐다. 이에 이번 학기부터 우리학교 학생식당 음식(이하 학식)의 가격 또한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기준 300원~500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기준

500원~1000원 수준 인상됐다. 학식 가격 인상을 두고 양 캠퍼스(이하 양캠) 학생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학교의 △학식 가격 인상 배경△ 학내 구성원의 엇갈린 목소리△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학식 가격 인상 배경

지난달 24일 우리학교 설캠 제56대 총학생회 ‘이름’(이하 설캠 총학)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학식 가격 인상에 관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설캠 인문과학관의 학식 가격이 최소 300원에서 500원 오를 것이란 내용이였다. 실제로 학기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설캠 인문과학관 학식은 △면 요리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중식1·석식1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중식2·석식2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라면·김밥 1,800원에서 2,100원으로 인상△토스트 1,500에서 1,800원으로 인상됐다. 설캠 교수회관 식당의 식사 가격은 5,500원에서 6,500원으로 1,000원 인상됐다. 우리학교 글캠에도 학식 가격 인상이 적용됐다. 후생복지관 학식(이하 후생관)은 500원에서 1000원 수준, 후생관 교직원 식당 음식 가격은 1,000원 인상됐다.

이번 학기 학식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도 우리학교에선 지속적으로 학식 가격을 인상해왔다. 지난 2018년 우리학교 설캠 인문과학관의 학식 가격은 평균 260원 인상됐다. 글캠의 후생관 학식 가격은 지난 2018년에 200원에서 300원가량 올랐다.

설캠의 학식 운영처인 후생과 측에선 우리학교 학식 가격 인상에 대한 원인을 △전기·가스비 및 기타 운영비 인상△제품 제조원가 상승△최저 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품질 유지를 위한 운영 자금 확보로 제시했다. 글캠의 학식 운영처인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측에선 △식자재 가격 상승△인건비 상승△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캠퍼스 내 유통 인구 감소 등의 문제에 직면해 이번 해 2학기부터 학식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학식 가격 인상의 원인으론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이 꼽힌다. 이번 해 먹거리 물가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해 국제 곡물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며 곡물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김웅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식량의 수입의존도가 높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가공식품 가격과 외식 물가의 오름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먹거리 물가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며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가 많다. 하유진(아시아·마인어 21) 씨는 “전체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와중에 학식 가격까지 인상됐다”며 “다른 생활비 지출이 전부 오른 상황에 필수 지출비인 식비마저 큰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식비 지출 부담을 우려한 설캠 총학은 지난달 24일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학교 학생의 의견을 취합한 후 이번 달 초 우리학교 본부와와의 면담을 통해 학식 가격 인상을 저지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설캠 총학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학식 가격 인상이 결정됐다. 한편 글캠 제43대 총학 ‘외대의 봄’(이하 글캠 총학)은 “물가 인상률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은 생협의 재정에 대한 피해와 운영난이란 결과를 초래했다”며 학교의 학식 가격 인상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글캠 총학은 “생협 측과 인상된 가격만큼 학식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협의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학식 가격 인상에 엇갈린 목소리

양캠의 학식 운영 측은 학식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던 입장이다. 설캠의 학식을 관리하는 후생과에선 “학생식당의 누적된 적자로 인해 더 이상 가격을 동결할 수 없었다”며 “현재 학식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면 학생식당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글캠의 학식을 담당하는 생협 측에선 “범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으로 이

어져 최저임금 기준으로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며 “학내 생협 매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했고 이에 어쩔 수 없이 학식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외대학보에선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학식 가격 인상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근 인상된 학식 가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설캠 학생 20%와 글캠 학생 28.6%가 학식 가격 인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 경제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이를 이해한단 반응을 보였다.

생협 직영식당 식대인상 공고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영향으로 구내식당 운영등단이 장기화되면서 식당운영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중, 최근 식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 및 인건비 인상에 이은 구인난까지 겹쳐져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협동조합은 구내식당의 안정적인 운영여건을 조성하고 급식의 질을 개선하고자 직영식당의 식대인상(안)을 마련하여 생협이사회 심의 후 총학생회 및 대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부속이 식대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맛있는 식사제공으로 구내식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이용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식대 인상일자 : 2022년 9월 1일 (목) 부터

2. 식대 인상가격

구 분	조정 전	조정 후	인상액	비고
교직원식당	학내 5,000원 / 외부 6,000원	6,000원 (단일가격)	1,000원	외부식수 제한 판매
학생식당	3,000~3,500원	3,500~4,500원	500~1,000원	코로나별 단계적 정상화

3. 기타

구내식당 운영종단 장기화 및 주방 근무 인력의 구인난이 심각함에 따라 구내식당의 운영 정상화까지 일부 코너의 운영이 중단될 수 있음을 양해 바라오며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 08. 26.

한국외국어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글캠 학식 가격 인상 공고

서울캠퍼스 직영식당 식대인상 안내문

서울캠퍼스 직영식당(교수회관식당, 학생식당)은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 제공을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지만, 최근 식재료 가격의 급격한 인상 및 인건비(최저임금 등) 상승으로 아래와 같이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식당의 안정적 운영과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오니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식사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캠퍼스 직영식당

- 아 래 -

1. 인상일자 : 2022. 9. 1(목)부터

2. 인상가격 (단위:원)

식 당 명	메뉴명	인상 전	인상 후	인상액	비고
교수회관식당	단일메뉴	5,500	6,500	1,000	
학생식당	중,석식1	3,500	4,000	500	
-	중,석식2	3,000	3,500	500	
-	면	2,000	2,500	500	
-	라면,김밥	1,800	2,100	300	
-	토스트	1,500	1,800	300	
-	공기밥	500	700	200	
-	치즈,계란	300	400	100	

2022. 8. 31.

행정지원처장

▲설캠 학식 가격 인상 공고

그러나 우리학교 학생의 대다수는 학식 가격 인상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설캠 학생들의 80%와 글캠 학생들의 71.4%가 학식 가격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학식 가격 인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더 높았던 점을 보여주듯 실제로 학생들의 학식 이용 횟수도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설캠 학생의 60%와 글캠 학생의 57.1%가 학식 가격 인상 후 학교식당에 방문하는 빈도수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학식 가격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설캠 학생들은 △저렴한 가격이란 학식의 장점이 사라져서(66.7%)△학식 가격 인상만큼 서비스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25%)△학식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학교의 다른 수익 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42%) 학식 가격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학식 가격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글캠 학생들은 △학식 가격 인상만큼 서비스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60%)△저렴한 가격이란 학식이 장점이 사라

져서(30%)△학식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학교의 다른 수익 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10%) 학식 가격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음식의 종류가 한정돼 있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다. 김예림(경상·GBT 20) 씨는 “학식 가격이 올랐음에도 돈가스 등 특정 종류의 음식만 제공돼 아쉽단 친구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학식에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제공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학식 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는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학식 가격 인상 반대 및 천원의 아침밥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학식은 단순 식당 운영이 아닌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에 속한다”며 “대학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대학이 협업체 대학가의 식비 부담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표명했다.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의 경우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000원의 식사’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1,000원 식사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서울대 대학본부 장학복지과에서 1,000원 식사를 위한 지원금을 1년에 3억 원씩 발전기금 형태로 학생식당에 전달하기 때문이다. 원가는 2,200원이지만 학생이 1,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1,200원은 학교가 부담하는 것이다. 성균관대학교에서도 현재 천원의 아침밥을 운영하고 있다. 원가 일부분을 △교직원△재학생△학교 동문△학부모 등에게 후원을 받아 충당하고 있다. 3,500원의 원가가 드는 음식의 비용 중 2,500원은 후원금을 통해 충당하고 1,000원은 학생들이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학교 설캠과 글캠의 학생식당은 앞으로 합리적인 학식 가격으로 양질의 학식을 제공할것단 입장이다. 설캠 후생과 측은 “학식 운영 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기념품△매점△서점 등의 수익으로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며 학식 가격 동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동 우리학교 생협 사무국 기획홍보팀 대리는 “학식 가격이 인상된 만큼 식사의 질을 개선하고 높은 만족도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설캠 총학 측은 “학식 가격 문제를 단순 식당 운영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학생식당 운영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문제는 학생이 부담하기보다 학교본부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다”고 피력했다. 특히 “저소득층 학우의 경우 학식 가격 변동에 따른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설캠 총학 측은 “학생식당 운영에 대해 대학 본부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단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글캠 총학 측은 “앞으로 합당한 가격과 준수한 품질의 학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식사와 식단표를 점검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생협과 지속적으로

학식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학식 가격 인상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식 가격을 논의해야 할 때다.

캠퍼스 내 활주하는 이륜차,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선

최근 우리학교에 이륜차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가 캠퍼스 내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 중이다. 뿐만 아니라 사고 우려 이외에도 스로움△매연△미관 훼손△주자 공간 침해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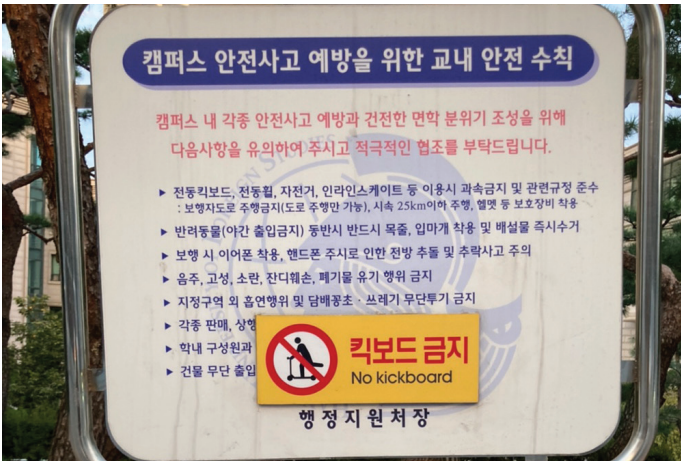
리학교 내에서도 이륜차 이용을 규제하고 단속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이륜차 이용 실태△우리학교 내 이륜차로 인한 다양한 피해△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이륜차 이용 실태

이륜차란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를 의미한다. 이륜차는 배기량에 따른 오토바이로 분류돼 운전면허 없이는 운행이 불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가 이륜차에 속한다. 최근 이륜차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그에 따른 사고 발생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14일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미등록 오토바이를 몰던 청소년이 정차 중이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는 차량 등록과 면허가 없는 상태로 사고를 내 사건의 심각성을 더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이륜차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륜차를 타기 위해선 만 16세 이상이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무면허로 운전하는 건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국내 모든 등록차는 번호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번호판을 등록하지 않은 오토바이는 125만 3,134대로 전체 228만 3,341대의 54.9%에 달했다. 이어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신고 건수는 지난 7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1만 3,809건에 달했다. 이륜차의 교통 법규 준수도 부실한 상황이다. 지난 15일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보행자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 차량의 일시 정지 비율이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 비해 15.8%p 증가했다. 그러나 이륜차는 6.3%에서 9.2%로 2.9%p가 높아지는 데 그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 전·후 모두 저조한 준수율을 보였다.

◆우리학교 내 이륜차로 인한 다양한 피해

우리학교 캠퍼스 내에선 이륜차 중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가 자주 목격된다. 특히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경우 캠퍼스 부지가 넓어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 비해 이륜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피해 정도 역시 높다. 외대학보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이륜차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인식과 피해 사례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캠퍼스 내에서 이륜차를 목격했다고 답한 비율은 88.7%이고 피해를 겪었다고 답한 비율은 82.9%였다. 학생들이 꼽은 이륜차로 인한 피해로는 스름 소음으로 인한 피해(60%) △불법 주차로 인한 캠퍼스의 미관 훼손(40%) △자동차 주차 공간 침해(20%) 등이 있었다. 이 밖에도 매연 냄새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한 이도 있었다. 박현우(국제지역·브라질 22) 씨는 “작은 소음과 매연 냄새로 인한 불편함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글캠 주차장 곳곳엔 이륜차들이 있지만 대부분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장시간 방치되고 있다. 글캠 기숙사 시설관리팀의 경우 지난해 4월 기숙사 지하주차장에 방치된 미등록 오토바이를 폐기처리했다. 그럼에도 미등록 오토바이 문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오토바이 소유자가 졸업하면서 버리고 간



▲전동킥보드 사용 금지를 알리는 설캠의 안전 수칙 표지판



▲우리학교 글캠 지하주차장에 방치된 오토바이

미등록 이륜차가 학교 내 주차장과 대학 인근 주택가 골목 곳곳에 방치돼 미관을 훼손하고 주차공간을 침해하고 있다. 박지훈(국제지역·브라질 21) 씨는 “우리학교가 대면 수업을 진행하며 자동차를 타고 오는 학우들이 많아 주차공간의 협소함을 느꼈는데 미등록 오토바이로 인해 주차공간이 더욱 줄었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양 캠퍼스(이하 양캠)에선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교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캠퍼스를 활보하는 학생들을 목격했던 제보를 자주 들을 수 있었다. 전동킥보드는 가속력에 비해 제동력이 부족하고 바퀴의 크기가 작아 길로 올라오는 진동과 충격을 잡아내기 어렵다. 그래서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고 사고 발생 시 속도와 충돌 정도에 비해해 부상의 정도도 달라진다. 글캠 학생지원팀 관계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 금지 현수막이 학교 입구에 붙어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고 안전도 착용 등의 이용수칙 또한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1학기에 전동킥보드 사고로

보건실에 방문하는 학생 수가 늘었다”며 사고의 위험성을 알렸다. 박현우 씨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도보로 통학 중 속도가 빠른 전동킥보드에 부딪힐 뻔한 경험 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접근이 쉬워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도 크다. 글캠 인근 모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최근 음주한 상태나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륜차 사고의 또 다른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운전 미숙이다”며 전동킥보드 면허 소지와 올바른 운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안전한 캠퍼스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학교뿐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미등록 이륜차와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7월 강원대학교에선 주차된 이륜차 50대를 조사한 결과 21대가 번호판이 미부착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안동대학교에선 지난 학기 동안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3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3건 모두 △안전도 미착용△역주행△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정원초과 탑승 등 이륜차 운행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발생한 사건이었다. 우리학교의 경우 설캠은 캠퍼스 부지가 넓지 않아 민원이나 피해 사례 발생 건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글캠의 경우 모현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글캠에서 △무면허운전△운전미숙△음주운전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이륜차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교 측의 지속적인 단속과 대책 마련(62.5%)△이륜차 등록 절차의 간편화와 강력한 법안 마련(40.6%) △총학생회 차원의 주기적인 캠페인 실시(25%)△캠퍼스 주변 경찰 단속 강화(25%) 등이 꼽혔다. 이에 오경현 우리학교 글캠 제 43대 총학생회 회장은 “이륜차 보호장비 착용과 전동킥보드 이용 금지 등의 사항을 학우들에게 주기적으로 상기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기적인 안전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륜차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며 안전한 이륜차 이용 문화가 자리 잡는 것도 중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륜차 사고는 자동차 사고와 같은 처벌 수위와 심각성을 가지지만 그에 반해 사회에서 인식하는 심각성은 매우 낮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이번 해 3월에 발표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에 따르면 공유서비스의 확대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도 258건으로 지난해 49건보다 약 5배 급증했다. 한 달에 20건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초기에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이륜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학교 학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원준 기자 05wonju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야간) 2023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3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2.09.23(금) ~ 10.07(금)	2022.11.04(금) ~ 11.21(월)
고사장 발표	2022.10.19(수) 15:00	2022.11.30(수) 15:00
면접전형	2022.10.22(토) 10:00 예정	2022.12.0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2.11.04(금) 15:00	2022.12.16(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2.11.07(월) ~ 11.11(금)	2022.12.19(월) ~ 12.23(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향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공공감사·정책학과(공공정책, 공공감사)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
라. 문화언터테인먼트학과(문화언터테인먼트)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 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우웨이머플라이 www.uway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제출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가. 장학금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 됨)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
- 공로 장학금 - 학비감면 장학금
- 원우회 일반 장학금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
- 본 대학원 내 학과간 교차수강(졸업학점의 50% 까지) 가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차처 사무2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

TEL. 02-2173-2428, 2429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3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3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2.09.23(금) ~ 10.07(금)	2022.11.07(월) ~ 11.21(월)
고사장 발표	2022.10.19(수) 15:00	2022.11.30(수) 15:00
면접전형	2022.10.22(토) 10:00 예정	2022.12.0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2.11.03(목) 15:00	2022.12.15(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2.11.07(월) ~ 11.11(금)	2022.12.19(월) ~ 12.23(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향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대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소지자, TESOL자격증 취득자)

마. TESOL연구과정(자격증 과정)수료자 우대

바. 복수학위프로그램(템플대학교), 3+1 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 프로그램(California State University, Selkirk College)

아. 추가학점 이수트랙신청

(논문·졸업연구보고서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교학과

TEL. 02-2173-3521~2FAX. 02-217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TESOL, Hanya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후회 없는 중국 상하이로의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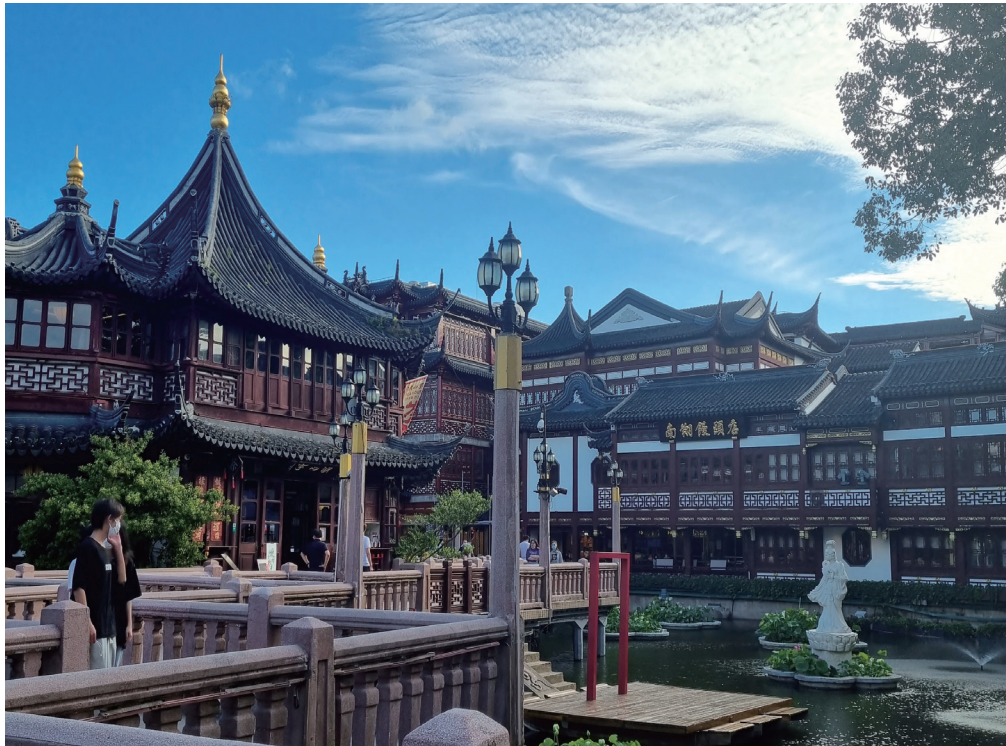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동안 우리학교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상하이 외국어대학교(上海外国语大学)' (이하상하이 외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처음엔 걱정도 있었지만 △다양한 경험 축적△중국 어 실력 향상△해외 문화 향유 등을 목적으로 중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이다 보니 개방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던 점과 더불어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던 상하이의 매력에 이끌려 우리학교와 교환학생 체결이 돼 있는 중국의 수많은 학교 중 상하이 외대를 교류학교로 선택했다.

지난 2월 상하이에 입국한 모든 외국인은 자비로 호텔에서 21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했다. 격리가 끝난 초반엔 관광도 다니며 중국 생활을 즐겼다. 중국엔 상상하이의 랜드마크 '동방명주(东方明珠)'△중국 강남 최고의 멋과 운치를 느낄 수 있는 '예원(豫園)'△화려한 야경을 볼 수 있는 '와이탄(外滩)' 등 관광명소가 많았다. 수많은 관광명소 중 한 곳을 추천하자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담겨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꼭고 싶다. 중국엔 관광명소뿐 아니라 맛있는 음식도 많다. 중국에선 상하이식 만두인 '생자옌바오(生煎包)', '샤오롱바오(小笼包)'와 같은 별미를 우리나라에 비해 저렴한 물가로 즐길 수 있다.



'헬로우 토크(HelloTalk)'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선 중국인 친구들을 사귀 수 있었다. 이 앱을 통해 만난 중국인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드라마 및 영화 등 K-콘텐츠를 좋아하고 한류 관련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며 한류의 유행을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한 중국인 친구와 같이 노래방에서 우리나라 노래를 부른 게 인상 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현지 중국인 친구들과 교류하며 언어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헬로우 토크를 사용해보길 추천한다.

지난 4월 1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상하이는 전면 봉쇄 조치를 당했다. 중국 당국은 본래 4월 5일까지 도시 봉쇄를 지



속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악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6월 1일이 돼야야 봉쇄가 풀렸다. 그 당시 가족사에 거주했던 난 학교 안에서 도시락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학교 밖에 거주하는 다른 학생들은 먹거리가 없어 라면 하나로 몇 끼를 때워야 했던 소문도 들려왔다. 봉쇄로 인해 택배나 배달을 모두 이용할 수 없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전에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의 결과가 늦게 나와 방에서 나갈 수 없어 무척 불안하고 힘들었던 상황도 있었다. 당시 상하이뿐만 아니라 베이징에서도 외부 취식이 불가능했으며 일부 대학은 봉쇄됐다. 이처럼 중국은 코로나19 관련 방침이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엄격하다. 중국이 정책을 바꾸지 않는 이상 앞으로 교환학생을 통해 중국에 온 다른 학생들이 코로나19 및 격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긴 봉쇄 기간에 지쳐 우리나라의 많은 유학생들이 본래 일정보다 일르게 귀국했으나 난 학기를 다 마치고

귀국했다. 오랜 봉쇄 기간이 힘들었지만 중국에 간 걸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학교가 봉쇄됐던 시기 동안 가족사에서 여러 국적의 외국인들과 만나 친해지며 다양한 문화를 배웠다. 또한 혼자 있는 동안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더불어 중국에 있던 사실 자체만으로도 언어 공부에 의욕이 생겨 중국어 실력 역시 크게 향상됐다. 힘들기도 했지만 이 유학 경험 덕분에 중국이란 나라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당분간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다. 중국 교환학생을 계획 중이라면 이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힘든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외국을 경험하는 건 유익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학교의 더 많은 학우들이 행복한 유학 생활을 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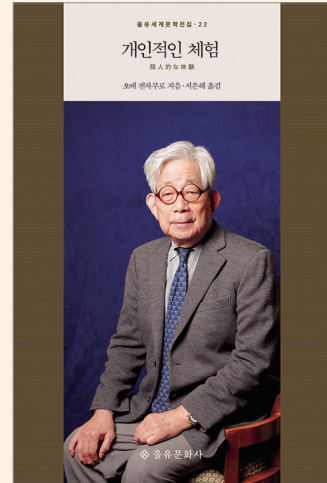
이정민(통번역 · 중국어 19)



일본

<개인적인 체험>

- 개인적인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될 때 -



책 '개인적인 체험'은 주인공 '버드'가 뇌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치료할 것인지 방치할 것인지를 두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버드는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 한다. 버드는 현실을 도피하고자 '히미코'와 바람을 피우며 아들과 아내로부터 도망치지만 결국은 현실을 마주하

기로 다짐하며 책은 마무리된다.

'개인적인 체험'은 작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이하 겐자부로)'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소설로 꼽힌다. 겐자부로의 삶과 이 책은 많이 닮아있다. 실제로 겐자부로의 첫째 아들 '오에 히카리(이하 히카리)'는 책 속 버드의 아들처럼 뇌헤르니아 환자였다. 뇌 헤르니아는 선천적으로 두 개의 뇌를 갖고 태어나는 희귀병으로 히카리가 태어난 1963년 당시 이 병은 생존 확률이 극히 적은 불치병이었다. 수술을 받는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했다. 겐자부로는 한 치의 고민도 없이 아들을 수술시키기로 결심했다. 덕분에 히카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자체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히카리는 절대유감을 가져 음악적 재능이 출중했고 이 재능을 바탕으로 작곡가가 돼 앨범을 발매한다. 히카리의 음악은 평론가들의 호평과 함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처럼 겐자부로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며 경험했던 감정을 소설 속에 녹여냈고 독자가 버드의 고뇌와 책임감에 몰입할 수 있게 했다.

겐자부로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유명하지만 사회 변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사회운동가이기도 하다. 이런 그의 가치관은 작품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책의 주제를 단순히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두고 고민하는 한 아버지의 개인적인 고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확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갓 태어난 장애아를 보고 비웃음을 참지 못하는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 같은 책 속의 등장인물처럼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를 '개인적인'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다. 어떤 이들은 바쁜 출근길에 불편을 준다며 지하철역에서 시위하는 장애인들을 비난하기도 한다. 우리 모두 타인의 아픔이 언제든 내 것이 될 수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 장애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전형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2.9.7.(수)9:00 ~ 9.16.(금)17:00	2022.10.26.(수)9:00 ~ 11.4.(금)17:00
면접전형	2022.10.15.(토) 10:00부터	2022.12.10.(토) 10:00부터
합격자 발표	2022.10.28.(금) 14:00 예정	2022.12.23.(금) 14:00 예정

※ 접수방법 : ①온라인 원서접수→②입학원서 출력본 및 기타 지원서류 제출(재출 또는 우편)→③지원자 유의사항 및 면접장소 확인→④구술(면접)시험 응시→⑤합격자 확인



◆ 지원자격

1. 특별전형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3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자로 학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5(5.0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3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자로 학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4.0(5.0만점), 3.3(4.3만점), 3.0(4.0만점), 90(100점만점) 이상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2. 일반전형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3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3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자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모집과정 및 학과 /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 : <http://gr.hufs.ac.kr>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 우편제출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실(대학원 1층 102호)
대학원 입시담당자 앞

◆ 입시문의

02)2173-2386, 2397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3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3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2.10.04(화) ~ 10.14(금)	2022.11.14(월) ~ 11.25(금)
고사장 발표	10.20(목) 15:00	12.01(목) 15:00
면접전형	10.22(토) 10:00 예정	12.0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11.03(목) 15:00	12.15(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11.07(월) ~ 11.11(금)	12.19(월) ~ 12.23(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 일정은 정원 총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 문학 학과
라. KFL 문화 간 소통 전략(협동과정)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급 학기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른 가능)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대학 전학원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8) 재직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1) 자격증 : 초·중·고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지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학기로 조기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환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F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청년을 위협하는 강통 전세, 당신의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최근 ‘강통 전세’로 인한 전세보증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하 주보공)에 따르면 이번 해 1월부터 8월까지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2억이 넘는다. 또한 전세보증사기 피해자의 약 75%는 청년층으로 특히 청년층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4일 강통 전세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출 상환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보증사기의 실태△우리학교 학생의 인식△전세보증사기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보증사기의 실태

최근 전셋값이 매매가와 비슷해지는 지역이 늘어나며 이른바 ‘강통 전세’ 현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강통 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뜻하며 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 발생한다. 보통 전세가율*은 50%와 70% 사이가 일반적이며 70%를 넘어갈 때 전세가율이 높다고 표현한다.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높으면 전세가율이 100%를 넘게 되는데 이를 마치 강통처럼 알맹이가 텅 비었던 뜻에서 강통 전세라 부른다. 강통 전세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집주인이 과도한 용자로 매입한 주택의 가격이 보증금보다 더 하락해 집을 팔아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다. 두 번째론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가격에 맞춰 계약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다. 두 경우 모두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며 임차인이 강통 전세 주택에 보증금을 내고 입주할 경우 계약 만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보증사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사실 집값이 상승함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사기로 분류되진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분양업자나 중개업자와 함께 전세 보증금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세입자를 끌어들이는 경우엔 사기 행위로 분류된다. 계약할 땐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도 계약 이후 확인했을 때 집이 은행 담보로 잡혀있는 경우도 사기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집주인이 대출을 새로 받았거나 세금 미납자로 바뀌어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개한 지역별 △경매낙찰△보증사고△전세가율 통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이 100% 이상인 지역은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인천시 남동구 남촌동△경기도 안산 상록구 사동 등 수도권 12개 동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강동구 길동(97.5%)△강서구 염창(96.4%)△강동구 성내(96.3%)△동작구 신내방(94.9%) 등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곳이 다수 존재했다. 또한 주보공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에 발생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511건이며 보증사고 피해 금액은 1,0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각각 △178건△170건△130건 총 478건으로 전체 반환보증 사고의 95%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우리학교 학생의 인식

지난 12일 주보공이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번 해 8월 전체 전세보증사기 피해자의 74.7%가 20·30세대 청년층이었다. 서원석 중앙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청년층은 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청년들의 피해가 높은 이유로 청년의 부동산 관련 지식과 경험 부족을 꼽았다. 외대학보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세보증사기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세보증사기(강

통 전세)에 대해 알고 있나’란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8%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신청△전세보증보험 가입△전세사기범 조회 사이트 이용과 같은 전세보증사기 대비 방안을 전부 모른단 답변이 27%를 기록하는 등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학기 설캠 인근에서 반전세로 자취방을 구했던 우승훈(상경·국통 21) 씨(이하 우 씨)는 “집을 구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며 강통 전세에 대해 알게 됐지만 청년층이 자주 피해를 입는 사기란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우 씨는 “반전세의 보증금은 월세 보증금보다 높기에 계약이 끝난 후 혹시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했다”고 덧붙였다. 작년 2월에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근처에서 전세로 자취방을 구한 허현(경상·GBT 20) 씨는 “전세 계약 당시 전세보증사기나 △공과금 미납 명목△시설 유지△임주 청소 등의 이유로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 불안했다”며 당시 심정을 밝혔다. 이와 같이 전세보증사기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는 한편 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대책에 대해선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대학보는 우리학교 학생의 전세보증사기 대비 방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대표적인 대비 방안을 제시 후 알고 있는 방안을 복수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5%가 ‘전세사기범 조회 사이트’를 안다고 꼽았다. 이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신청’이 각각 36%로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전세보증사기 대응 방안으로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꼽힌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주보공에서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임차인이 일정 기간 매달 보험료를 지급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보증보험으로 이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세로 집을 얻어 거주 중이라고 답한 우리학교 응답자 중 절반의 학생만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돼 있다고 답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를 응답 받은 결과 응답자 전원이 전세보증보험의 존재를 몰랐단 답변을 골랐다. 실제로 우 씨는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까지 전세보증보험이란 게 존재한단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집을 계약하기 전 개개인의 차원에서 전세보증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집을 계약하기 전 집주인 조회 사이트 ‘영리한 세입자’를 활용해 자신이 계약하는 집주인이 상습범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을 한 이후에도 전세보증사기가 의심되거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 무료로 주택 임대차3범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사기 대책

전세보증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란 질문에 모든 학생이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을 꼽았다. 이어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금전적 제도 강화(54%)△법률 상담 프로그램 확대(36%)△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교육(36%) 순으로 응답이 뒤따랐다. 이와 같이 우리학교를 비롯해 전세보증사기 피해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단 청년층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보증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도 단위별로 제공하는 전세가율 정보를 23일부터 매달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유 실장)은 “그동안 정보 측면에서 약자였던 임차인이 투명하게 공개된 시장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면 불리한 계약에 놓이지 않을 것이다”며 주택임대시장 내 정보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해 7월 25일부터 ‘전세사기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전세보증사기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시작한 데 이어 피해자의 피해 보상에 집중한 대책을 내놴다. 이번 달 14일 △법률 상담 및 매뉴얼 제공△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출 연장△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등 강통전세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전적인 지원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긴급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거주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 중 신혼부부와 청년이 강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기존 대출 상환과 이자 지원을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다음 해 초까지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원한다면 위원회 소속 변호사와 연계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유 실장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달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국세청과 함께 갭투자**와 강통전세 등에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임차인 권리 구제를 위한 안정적인 보증금 배분△적극적인 공매 의뢰 및 공매 절차 진행△조기 공매가 필요한 압류재산의 신속한 사전 실의 분석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김현수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장은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에 버금가는 큰 금액이기에 한번 사기를 당하면 미래까지 저당 잡히는 경우가 많다”며 전세 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에 특히 주의를 요했다. 전세보증사기 피해가 청년층에게 집중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전세보증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해결책과 개인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할 때다.

*전세가율: 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

**갭투자: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작은 집을 그 차액으로 사들이는 것.

무기력한 스톡킹 처벌법, 최선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지난 14일 신당역 지하철 역사에서 스톡킹 피해자인 여성 역무원이 살해됐다. 가해자는 스톡킹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이었으며 1심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스톡킹 처벌법의 허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10월 스톡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경찰의 현장 대응 강화 방안이 잇따라 나왔지만 스톡킹 피해자들이 보복 범죄로 희생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스톡킹 처벌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스톡킹 처벌법의 현주소△스톱킹 처벌법에 남아있는 문제△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스톡킹 처벌법의 현주소

지난 14일 오후 9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전주환 씨(이하 전 씨)가 역사 내부 순찰을 하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전 씨는 이전에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던 당시 입사 동기로 알고 지낸 피해자로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스톡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받던 중이었다. 불구속 재판 중이던 전 씨는 징역 9년을 구형받았고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톡킹 처벌법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우리나라 국회에선 1999년부터 스톡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발의를 시작으로 여러 번 스톡킹 처벌법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입법 계획이 번번이 무산됐다. 스톡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진 스톡킹이 경범죄의 일종인 지속적 괴롭힘에 포함돼 피의자가 다발적인 범죄를 저질러야만 처벌할 수 있었다. 이후 20년 넘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 지난해 10월 스톡킹 방지법이 통과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스톡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상대방의 가족△상대방의 동거인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스톡킹 행위 유형으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가 있다. 이런 스톡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스톡킹 범죄로 분류한다. 스톡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과거 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출동 경찰관에게 전달한다. 만약 신고자의 신고가 취소될 때도 피의자에 의한 강압적인 신고 취소일 가능성을 고려해 반드시 경찰관의 현장 출동 후 사건을 종결한다. 스톡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톡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3천만 원 이하의 벌금△흉기 휴대 시 5년 이하의 징역△흉기 휴대 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스톡킹 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스톡킹 범죄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검찰청이 공개한 스톡킹 사건 접수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월평균 136건이었던 스톡킹 사건 접수 건수는 이번 해 2분기 649건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약 477% 증가했다.

이에 스톡킹 피해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스톡킹 처벌법이 통과됐지만 범죄자 처벌, 피해자 접근금지 같은 형사법 절차를 범무부 소관으로 규정했을 뿐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 충분하지 않단 한계가 있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

지△스톱킹 범죄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 시행△스톱킹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등 종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단 의견을 내세웠다.

◆스톱킹 처벌법에 남아있는 문제

지난해 10월부터 스톡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지난달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신고된 스톡킹 건수는 △2020년 4,515건△지난해 1만 4,509건△이번 해 7월까지 1만 6,57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스톡킹 처벌법이 스톡킹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스톡킹 범죄 처벌의 문제점으로 △반의사 불벌죄△짧은 보호조치 기간△2차 신체 피해 발생 등이 있다.

스톱킹 처벌법엔 스톡킹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가 포함된다. 이 조항으로 인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고자 불구속 상태로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형태의 보복 범죄 및 2차 범죄의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신당역 스톡킹 사건 가해자 또한 보복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실제 스톡킹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중 상당수가 공소 기각 판결을 받는 것도 반의사 불벌죄 때문이란 의견도 존재한다. 법 제정 이후 스톡킹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 선고가 내려진 161건의 판결문 중 공소 기각이 선고된 사건은 36%로 58건에 이른다. 이는 범죄의 평균 공소 기각률인 1%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수사기관이 유죄로 판단해 재판으로 넘긴 사건 중 상당수가 무죄 상태로 돌아간다. 이에 대해 김범기 법무법인 해울 변호사는 “스톱킹 처벌법에 명시된 반의사 불벌죄로 인해 2차 범죄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반의사 불벌죄를 삭제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톱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지는 조치인 잠정조치가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잠정조치는 스톡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혹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구치소·유치소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잠정조치의 경우 제4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이 신청 후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하는 구조로 진행돼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없다. 게다가 경찰과 검찰이 청구한 사건을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실제 지난 1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스톡킹 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건수 5,788건 중 17%인 992건이 기각됐다.

스톱킹 가해자의 구속영장 기각 후 보복 범죄로 이어졌던 사례도 드러났다. 지난 21일 서울경제가 발표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가해자 조치 법제화 방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도 2차 신체 피해를 본 피해자 가운데 10명 중 1명은 살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경찰이 피해자에게 바로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하나 여전히 2차 신체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스톱킹 범죄, 최선의 예방책을 위해선

지난 16일 법무부는 “스톱킹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구금장소 유치△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의 적극적인 청구 등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스톡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고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톡킹을 예방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 전했다. 대검찰청은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 처분을 형사처벌로 상향△잠정조치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스톡킹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경찰이 직권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 199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California)의 스톡킹 방지법 통과를 시작으로 모든 주에 스톡킹 방지법을 도입했다. 주마다 처벌 조항이 상이하나 미국의 스톡킹 처벌법은 공통적으로 합리적 공포단 개념을 적용한다. 스톡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보단 해당 상황이 스톡킹 피해자가 공포를 느낄만한 상황인지에 따라 스톡킹 여부를 유동적으로 판단한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을 기준으로 스톡킹 여부를 판단하는 피해자 중심의 법체계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2000년부터 스톱커 규제법을 시행했다. 일본의 스톱커 규제법은 크게 8가지 형태로 스톱킹을 규정하고 온라인 스톱킹과 명예훼손까지 폭넓게 처벌한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즉각적으로 가해자의 스톱킹 행위를 금지할 권한을 갖는다. 접근금지와 같은 스톱킹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혹은 약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일본은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스톡킹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현행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법과 수사체계를 개선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도 스톡킹 처벌법 시행 뒤 드러나는 허점을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또한 스톡킹 범죄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란 인식하에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톡킹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나라나 기자 04rinaisme@hufs.ac.kr

www.사사한줄토막.com

정치 법원,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 거절해

지난 20일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 사무 분담상 제51민사부와 제52민사부가 존재한다”며 “이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한 건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회 서울경찰청, 가슴가살균제 증거위조 의혹 등 수사 착수해

지난 22일 시민단체와 가슴가살균제 피해자 단체가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연장 법률사무소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다. 지난 6월 시민단체와 가슴가 살균제 피해자 단체는 김연장이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이 의심된단 실험 결과를 알고서도 옥시의 피해 은폐 조작에 가담했다며 증거위조조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제 미 연준 자이언트 스텝, 한미금리 역전돼

지난 22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p 인상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돼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가 3.00~3.25% 수준으로 올라 우리나라의 금리가 한 달 만에 재역전됐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 양국의 기준금리가 같아졌으나 다시 격차가 0.75%p로 벌어졌다.

국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군 동원령에 주변국을 참전 거부해

지난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동원령을 발령하자 주변국들이 자국민 참전을 불허하고 러시아인의 망명에 대비하는 등 국가 문단속에 나섰다. 지난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검찰청은 해외에서 벌어지는 군사 분쟁에 참전하는 이는 국내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자국민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앞으로 펼쳐질 우주 산업의 모습은?

지난해 5월 우리나라는 미국이 50년 만에 재개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Artemis Program)’의 10번째 가입국이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KSLV-II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톤 이상의 인공위성과 우주선을 자력으로

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거듭났다.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교수를 만나 세계 우주 산업의 화두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교수

Q1.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1972년까지 수행된 20세기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폴로 프로그램’을 승계하는 21세기의 유인 우주탐사 프로그램입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은 미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 간에 벌어진 우주 경쟁의 일환으로 인간을 달에 보내고 지구로 귀환시키려는 목적에서 진행됐어요. 이와 다르게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달에서부터 화성까지 탐사 범위를 넓혀 궁극적으로 화성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Q1-1.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세부 단계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요. 첫 단계인 아르테미스 1단계에선 최장 42일 동안 무인 임무를 수행하며 아르테미스 1호를 구성하는 ‘오리온 다목적 우주 유인선(Orion Multi-Purpose Crew Vehicle)’(이하 오리온) 및 우주발사시스템(Space Launch System) 발사체(이하 SLS 발사체)를 검증하고 후속 단계에서의 성공적인 유인 탐사를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2단계에선 2024년에 달 궤도로 사람을 직접 보낼 계획이에요. 마지막 아르테미스 3단계에선 1972년 아폴로 17호 발사 이후 처음으로 달 표면에 우주비행사를 보내고 귀환시킬 계획입니다. 이 임무를 통해 최초로 달에 여성과 유색 인종이 발을 내딛게 되단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돼요.

Q1-2. 10월~11월에 아르테미스 1호 발사 및 아르테미스 1단계가 수행될 예정입니다. 아르테미스 1단계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1단계의 첫 번째 목적은 오리온이 지구로 귀환 시 대기권 진입 동안 발생하는 엄청난 속도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열 차폐막의 성능을 시험하는 겁니다. 오리온의 대기권 진입 속도는 마하 32, 온도는 섭씨 2800도 정도로 저궤도에서 재진입하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이나 비행체보다 훨씬 빠르고 뜨겁기 때문이죠. 두 번째 목적은 다음 단계의 운영 및 시설 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아르테미스 1호의 발사에서부터 비행체 회수 과정까지 미국 항공우주국 NASA(이하 NASA)의 발사시설 및 지상 시설 체계의 모든 면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귀환 절차△비행 중 비행체의 통신△심우주 열 환경 및 방사능 대비△오리온 운영△추진 및 항법 시스템 검증△SLS 발사체 발사 상승 중 분리 등이 요구됩니다. 마지막 목적은 오리온의 태평양 착수 후 이를 회수하는 절차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Q2. 지난달 우리나라가 발사한 달 탐사 궤도선인 다누리호엔 NASA의 탑재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NASA와 협력한 이전의 사례들과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사이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약정

서에 10번째 협정국가로 서명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을 포함한 21개국이 약정서에 서명한 상태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예요. NASA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관리를 도맡지만 실제 설계 및 개발은 NASA의 기술 이전을 기반으로 우주 산업체들이 주도적으로 납품하는 형태입니다. 오리온의 경우 미국의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Corporation)이 설계를 비롯한 제작과 시험을 주도적으로 시행했고 서비스 모듈의 경우 유럽우주기구(ESA) 주도하에 여러 유럽 업체가 개발해 납품했죠. 미국과 유럽 외의 국가는 참여 약정서에 서명은 했지만 실질적인 참여는 아직 부재한 상태입니다.

Q3.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로켓인 SLS 발사체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SLS 발사체는 지금까지 개발된 우주 발사체 중 성능이 가장 우수한 로켓입니다. RS-25 엔진 4기로 구성된 주 추진시스템은 지난 2011년에 은퇴한 우주왕복선의 엔진을 재사용한 것이고 생성 추력은 약 760톤 수준이에요. 이 엔진은 극저온 추진제인 액체수소 연료 및 액체산소 산화제를 사용해 성능이 대단히 뛰어나죠. 하지만 아르테미스 1호의 발사 준비과정에서 볼 수 있듯 연료 주입 과정에서의 수소 연료 누출과 같은 여러 기술적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SLS 발사체 양쪽에 부착된 2기의 고체 로켓 부스터는 과거 우주왕복선에 사용됐던 모터를 확장해 개발한 것이고 생성 추력은 약 3,240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 추력이 아폴로 우주선 발사에 사용된 새턴 5(Saturn V)에 비해 15% 정도 증가했죠.

Q3-1. SLS 발사체의 매우 높은 발사 비용으로 인해 우주탐사의 나머지 분야에 대한 예산이 크게 줄어들고 있단 국내외 관계자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적에 관한 배경과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대안이 궁금합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예산은 △오리온△탐사 지상 시스템△SLS 발사체의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SLS 발사체의 단일 발사 비용은 5조 원 내외로 추정돼 막대한 예산 소모가 예상돼요. 이는 2013년에 NASA가 추정한 비용보다 8배가량 큰 규모죠. 민간업체인 스페이스 X(Space Exploration Technologies Corp)가 2단 우주 발사체인 팰컨 9(Falcon9)과 드래곤 2(Dragon 2)를 개발하는 데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NASA의 관료적 개발체계가 높은 발사 비용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2025년 아르테미스 3 단계엔 SLS 발사체와 함께 스페이스 X의 스타쉽 발사 시스템(Starship Launch System)이 사용될 예정이에요. 우주탐사 비용 절감을 위해 민간업체가 효율적으로 개발한 발사체 로켓을 투입하게 되는 것이죠.

Q4.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더불어 우주자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우주 자원인 헬륨3에 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전의 우주조약은 특정 국가가 우주 자원을 전용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르테미스 협정은 참여국이 우주 자원 채굴을 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개념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달엔 각종 희토류를 비롯한 희귀금속 및 헬륨-3 등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중 헬륨-3은 화석연료 및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핵융합 발전은 우리나라나 토륨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원자력보다 효율이 5배 이상 높고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Q5.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미국 주도의 우주 연합체 인만큼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의 우주 산업은 어떤 상황인가요?

미국은 우주 경쟁에서 선두를 지키기 위해 자국이 주도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엔 핵심 안보 동맹국을 포함해 미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동맹 및 협력체제를 우주로 확장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는 배제됐기 때문에 이들은 독자적인 우주탐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중국은 경쟁 중인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우주탐사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6. 우리나라의 우주 분야 연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나 노력엔 어떤 게 있나요?

국내 우주 산업은 △기술 수준△매출△생태계 조성 등의 측면에서 아직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요. 국내 우주 산업 육성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내 우주 산업체의 능력 수준을 비롯해 우주 산업 생태계 현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 연구기관과 국내 우주 산업체의 주기적인 협력도 수반돼야 하죠. 아쉽게도 현재 국내 실정은 우주 개발 사업을 두고 서로가 경쟁하고 있는 구조예요. 국내 우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체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탑재체 : 인공위성은 크게 탑재체와 버스로 구성됨. 이때 탑재체는 인공위성의 내부에 위치하며 부여된 임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을 맡음



넘어졌기에 일어날 수 있었다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됐다. 이 글을 계기로 나의 지난 시절을 되돌아봤다. 지금까지 난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실패를 겪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날 단련시킬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며 다시 부딪혔다. 역경과 좌절이 겹쳐진 인생은 없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이 얼마나 값진지 알지 못한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그 과정들을 차근차근 밟고 오르면 목표가 이뤄질 거란 확신은 하지 못하더라도 이루는 과정에서 나 자신은 더욱 성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의지력이 단련돼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을 해낼 수도 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무지개를 볼 수 있을까? 실패가 없는 인생은 결코 완벽한 인생이 아니다. 진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실패와 좌절을 이겨냈다. 우린 어린 시절 첫걸음을 떼기 위해 수없이 넘어져야만 했다. 넘어져 뛴기에 일어섰고 일어섰기에 지금은 달릴 수도 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외대학보에 들어온 것도 내 인생에 다가를 성공의 순간을 위한 투자다. 어떤 일이든 직접 해보아야 나와 맞는지 알 수 있기에 현재 언론인이란 소중한 꿈을 갖고 도전의 길을 걷고 있다. 과거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글을 잘 쓰고 좋아한단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글쓰기에 뛰어난 능력을 갖춘 타인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외대학보에 들어와 다른 기자들의 글을 읽으며 내 생각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래도 차라리 지금 부끄러워서 다행이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해 내 취약점을 보완할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외대학보에 들어와 우리학교를 대표하는 기자란 사명감을 느끼게 되다 보니 학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됐다. 반응이 뜨거운 기사와 학내 소식에 대해 자세히 찾아보게 됐고 '뉴스의이론과실제'란 교양 수업을 들으며 언론 공부에 진심을 다하기 시작했다. 내가 읽었던 수많은 기사가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수정 작업을 거쳐야 한단 걸 실제로 알게 되면서 현직 기자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들었다. 비록 학기 중에 친구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아쉽지만 그만큼 성장할 수 있던 사실이 날 뿌듯하게 만든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대학보에 대한 내 열정은 점점 커져간다.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다녔겠지만 외대학보에 소속된 이후로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이전 기억으로만 남기지 않고 기록하고 고민한다.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주제를 통해 우리학교 학생들을 위한 글을 쓸 수 있을지를 항상 생각하며 좋은 글과 시사점은 메모장에 기록해둔다. 다른 곳에서 쉽게 해보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 내게 이런 열정과 경험을 선물해준 외대학보는 하나의 친구이자 선생님 같은 존재가 됐다.



정원준 기자

[책 '인간 실격'을 읽고] 행복의 그늘이 비껴간 인간의 삶

'다자이 오사무(이하 다자이)'의 '인간 실격'은 전쟁이 한창이던 1930년대 무렵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소설 속에 작가의 모습이 투영된 주인공 '오바 요조(이하 요조)'의 불행이 처절하게 묘사돼 있다. 정당 의원인 아버지를 둔 그의 가정환경은 유복했으나 억압적이었으며 요조가 바라본 사회는 사람들의 위선과 가식으로 꾸며진 환경이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그는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유대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인간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조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마지막 구애의 수단인 어릿광대짓을 통해 세상과의 연결을 포기하지 않았다. 어릿광대짓은 인간에 대한 공포를 숨긴 채 그들과 이어지기 위한 요조의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그러나 어릿광대짓은 결국 그에게 불행을 야기한다.

요조는 불행에 대한 상징성을 갖는다. 그가 어릿광대짓을 시작한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였다. 세상과 이어지기 위한 어릿광대짓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본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행복의 추구와도 연관된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요조는 표면적으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고 결국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실현할 수 없었다. 그런 요조에게 미술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그에게 미술이란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창조적 활동이었다. 하지만 요조의 아버지는 요조가 공무원이 되길 강요했다. 요조에게 아버지는 공포의 대상이었기에 결국 그는 미술에 대한 자신의 꿈을 포기한다. 또한 요조는 '요시코'와 결혼하며 새로운 삶을 지향했다. 요시코는 타인을 쉽게 신뢰하는 순수한 마음씨의 소유자였다. 요조는 그런 요시코의 순수한 성품을 동경하며 그녀의 순진무

구한 마음에 의지했다. 요조에게 있어 요시코의 성품은 새로운 삶이란 행복을 추구하는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요시코가 자신의 지인에게 검탈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한 요조는 큰 절망에 휩싸인다. 이처럼 행복을 향한 거듭된 좌절은 요조가 삶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들었으며 방탕한 생활에 탐닉하게 하는 도화선이 됐다. 이는 요조가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계기가 된다. 이후 신체의 건강까지 잃어버린 요조는 행복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성취하길 열망한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에 이르기 어렵다. 선천적으로 행복을 실현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으며 행복을 위한 외적인 조건이 결여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대 사회에선 복지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 하지만 현대 복지 정책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이 지대엔 아직도 다수의 사람이 놓여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불행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 불행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만 행복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간실격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요조의 불행한 삶을 통해 행복을 반추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행복과 더불어 불행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수립은 현대의 여러 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명나디 기자 05nadi@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가타카'를 보고] 불완전함의 가능성

우주항공회사 '가타카'에 근무하는 주인공 '제롬 모로(이하 제롬)'는 80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타이탄 비행에 선발될 정도로 회사에서 촉망받는 우주 항공사다. 이 회사는 신분 확인을 위해 피와 소변을 비롯한 신체 조직 샘플을 통해 적격 판정 심사를 내리는데 이때 적격이란 우수한 유전자를 가리킨다. 영화 속 세계에선 질병 가능성과 정해진 수명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요소가 나쁜 인자로 여겨지며 큰 결함이 된다. 이에 유전자 조작을 통해 나쁜 인자가 제거된 아이를 인공 수정으로 잉태하는 게 영화에선 당연한 논리로 받아들여진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의 우열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우주 항공사란 꿈을 위해 가짜 신분으로 살고 있던 제롬의 진짜 이름은 '빈센트'로 그는 자연적으로 잉태됐다. 빈센트에게는 나쁜 인자를 제거한 상태로 인공수정된 동생 '안톤'이 있다. 그는 결함이 없는 안톤에 비해 높은 벽에 가로막힌 것 같은 자신의 운명에 매번 좌절한다. 하지만 동생과의 수명 시험 중 그보다 더 뛰어난 수명 실력을 보인 데다 익사할 뻔한 동생을 구해내며 선천적 요인보다 후천적 노력 이 더 중요한 것이란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에 빈센트는 오래된 꿈인 가타카에서 일하기 위해 자신의 유전적 결함을 감춰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그러던 중 그는 우성 유전자 증명을 판매하던 제롬 모로를 만나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제롬의 것으로 둔갑한 채 제롬 모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영화 '가타카' 속 세상은 모든 것이 정해진 유전자대로 결정된다. 하지만 안톤과 빈센트의 수명 시험을 비롯한 영화 속 여러 장면에선 과

학이 삶의 모든 것을 설명해 낼 수 없단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의 자명함보다 우리의 노력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이 영화는 알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한계와 수없이 마주하고 좌절하길 반복한다. 손톱만큼 작은 흠집도 자신에게 있다면 손바닥만 해 보인다. 특히 모든 것이 불확실한 청년기에 외부의 영향과 자태에 흔들리기가 더 쉽다. 하지만 정해지지 않았단 것은 곧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단 말과도 같다. 그렇기에 자신이 가진 빈 페이지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자신의 몫으로 남아 있다. 본인의 속도대로 살아갈 때 우린 남이 정해놓은 한계에 얽매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결함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의 흠은 오직 자신만이 제대로 직시하고 극복할 수 있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란 걸 깨닫는 순간 변화의 가능성이 생겨나고 우리의 부족함은 비로소 조금 더 채워진다.

과학은 아무리 검증된 사실이라도 오차를 고려해 99.9%의 확률을 가장 완전한 확률로 내놓는다고 한다. 그 모자란 0.1%를 채우는 건 아무도 모르게 오랜 시간을 버텨내 온 우리의 숨겨진 노력들이 아닐까. 당신의 노력이 당신의 세상을 매 순간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길 바란다.

한 비 기자 04hanbi@hufs.ac.kr

1070호 학보를 읽고

다시 찾아온 캠퍼스의 가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을 맞이하며 9월이 밝았다. 이번 학기 수업 방식이 전면 대면으로 바뀌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전과 한층 가까워진 캠퍼스의 모습이 예상된다. 외대학보 1070호에선 오랜만에 복직하는 캠퍼스의 모습을 반기면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즐기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 몇 가지 제시했다. △여성 전용 교좌에 대한 시각△폭우로 인한 교내 시설물 훼손 문제△교내 음주 문화△교내 창업 지원 및 참여 현황을 다뤘다. 3면에서 다룬 여성 전용 교좌는 성별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로 언제가 논의됐어야 했던 주제라고 생각한다. 성별을 이유로 특정 수업의 수강 자격을 제한하는 건 차별일 수 있다. 또한 취업 준비 교육은 모든 학생이 배워야 할 내용인 만큼 남학생에게도 수강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 특히 P/F 과목으로 분류되는 여성 전용 교양 강좌는 학점과 수업 강도 등의 이유로 학생들의 선호가 집중되기에 수강 자격 확대의 필요성이 더 크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강의 개설 또한 변화를 추구한다면 메시지를 담은 좋은 기사였다.

시대에 따라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건 비단 강의 개설뿐만이 아니다. 양 캠퍼스 모두 이번 여름 기습적으로 찾아온 폭우에 누수 및 지반 침하 등 큰 피해를 봤다. 4면에서 다룬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교내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처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시설관리팀은 이번 누수의 원인이 배수 시설이 아니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심한 폭우를 막을 충분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학교 측의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해 보인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또한 학생회관 산사태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8면에서 다룬 반지하 주거 문제도 인상 깊었다. 우리학교에도 월세 부담을 이유

로 반지하와 같이 열악한 시설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있다. 자취하는 학생이 폭우 피해를 보지 않았는지도 다뤘다면 더 풍족한 기사가 됐을 것 같다.

5면에서 다룬 교내 음주는 구성원과 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암묵적으로 합의돼있다. 하지만 최근엔 교성방과와 쓰레기 처리 문제로 피해 호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방과 동아리방을 제외하곤 캠퍼스 내에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다수의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설캠의 잔디광장과 글캠의 명수당 등 실외에서 음주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학교 차원의 해결책보단 학생들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캠퍼스 생활을 즐기며 학우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건전한 교내 음주 문화가 이어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학생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학교가 주변 학우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7면에선 우리학교의 창업 지원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창업은 산업을 활성화하는 주요 원천이다. 대학생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발맞춘 좋은 기사라 생각한다. 기사를 읽은 뒤 우리학교 재학생의 구체적인 창업 실태에 대한 궁금증이 남았다. 인터넷 사이트 대학알리미에서 주요 대학 재학생 창업 기업 수를 공식하고 있는데 그중 우리학교는 이번 해 기준 51개로 전국 대학교 평균보다 높았다. 이번 기사를 통해 창업에 꿈꾸는 재학생이 더 늘어났으면 한다.

청명한 가을을 기대했으나 갑작스러운 태풍과 폭우로 날씨가 조금 주춤하는 듯했다.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학생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맑은 날이 지속되길 바란다. 외대학보에서도 학생들의 이야기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지금처럼 다양하고 깊이 있는 주제를 다뤘으면 한다.

정나윤(사회·미디어 19)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070호 학보를 읽고

우리학교에서 바라보는 문제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이후 첫 전면 대면이란 변화 아래 우리학교 학우들은 부지런히 학기를 맞이했다. 여름 방학 기간 내 확산된 코로나19와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로 캠퍼스 시설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우리학교는 지난 학기보다 훨씬 복직이고 있다.

외대학보 1070호의 4면엔 폭우 여파로 침수된 학교의 모습이 실렸다.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 당시엔 그제 기록적인 폭우였던 기상 언론의 말과 현장 사진으로만 사건을 접했기에 그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하지만 1070호 기사 도입부에 수도권의 한 달 평균 강수량 수치와 그에 웃도는 8월 8일 하루 강수량의 수치를 비교해서 제시한 것을 보고 이번 폭우 피해의 심각성을 쉽게 실감할 수 있었다. 본 기사에서 전한 구체적인 침수 피해를 보니 무사히 개강한 게 다행으로 느껴졌다. 또한 지난 2011년 글로벌캠퍼스의 학생회관 1층 외벽이 붕괴된 등 과거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본 우리학교 시설들에 대한 각종 사례를 접하며 반복되는 피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꼈다. 그래서 기사 중반부에 나온 교내 수방 시설 점검 내용을 더욱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다. 다만 후반부에 수방 시설 예산 확보의 필요성이 언급됐는데 현재 얼마의 예산으로 수방 시설 관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부족한지 먼저 언급했다면 더욱 공감할 수 있었을 것 같다.

한편 대면 활동 정상화로 우리학교는 생기를 되찾았으나 이와 동시에 이전엔 고려하지 않았던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됐다. 5면에 제시된 캠퍼스 내 음주 문화 기사가 이를 다뤘다. 소음과 쓰레기 문제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니라 우리학교 학우로부터 비롯됐다.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

히 안고 가기에 학생들의 자체적인 음주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설문조사 응답자의 29.4%만이 캠퍼스 내 음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개선을 위한 움직임 이전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심각성을 많은 학우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수가 상황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동의와 움직임 역시 필수적이다.

3면에 있는 여성 전용 강의도 마찬가지다. 이 기사를 통해 우리학교의 특정 성별 전용 수업에 존재하는 논란을 처음 알게 됐다. 여성과 남성은 신체적 차이가 뚜렷하기에 여성호신술 강의처럼 신체 능력이 요구되는 강의는 성별로 분리해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 또한 여성이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약자에 속해있던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학교의 경우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많은데 수치상 다수의 성별만이 수강할 수 있는 강의가 절대적으로 평등한 것인지에 대해선 깊이 고심해봐야 한다. 성별에 상관없이 유익한 강의를 만드는 게 최우선이나 만약 특정 성별 전용 강의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부를 강의 개설에 앞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다른 면의 기사에도 다양한 학우의 의견을 듣고 싶은 주제들이 담겨있다. 특히 △반지하와 같은 취약 거주지역의 안전△자폐인과의 공존△IT 및 인공지능 분야에 집중된 청년 창업지원이 그렇다. 11면 사실의 '교육의 첫째 의무를 다시 생각하며'에 실린 말처럼 대학은 긍정적 방향으로 사회의 변화를 추동해 나가야 한다. 외대학보와 우리학교의 학우들이 우리 학교 내에 존재하는 소외와 차별을 없애는데 앞장설 수 있길 소망한다.

한 비 기자 04hanbi@hufs.ac.kr



국 · 부장 고정칼럼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번 학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됐다. 코로나19 또한 펜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될 수 있던 소식과 국내에선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전면 해지되며 마스크 없는 일상생활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새내기들은 대학 생활에 대한 설렘으로, 재학생들은 오랜만에 동기들을 만나 수업을 듣는 반가움 등 캠퍼스엔 활기가 가득하다. 이에 맞춰 학교 내 활동들도 본격화를 앞두고 있다. 단과대 체육대전을 진행하며 학과끼리 교류하고 잔디광장과 노천극장에 모여 연주회를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축소됐던 학교생활 중 일부는 여전히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학교 학식은 일명 ‘갯성비’라 불리며 유명세를 탈 만큼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로 학생들에게 제공됐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학식 가격 또한 오르며 학생들의 부담이 더해졌다.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식당의 경우 한 끼 식사 가격이 4,500원에서 1만원 수준으로 대학가의 식당보다 더 비싼 실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축소됐던 학식의 종류와 인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가격만 올라 학생들의 불만이 더욱 큰 상황이다. 대학 식당을 운영하는 목적은 학교 재정 마련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 복지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단 말에 공감한다. 가난한 대학생들에겐 학식 가격 인상이 곧 생계와 건강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계속된 논의를 통해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의 학식을 다시 맛볼 수 있길 기대한다.

그동안 공간 협소의 어려움을 겪었던 서울캠퍼스와 코로나19로 관리되지 않았던 학교 시설 문제가 겹치며 학내 동아리 활동에도 비상이 걸렸다. 방치됐던 학교 시설이 고쳐지지 않은 채 철거되거나 여러 동아리가 시간을 쪼개어 한 공간을 사용하는 등 동아리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학교 학생들은 대내외적으로 두각을 뽐내며 학교를 빛내고 있다. 대학 생활의 꽃이라 불리는 동아리는 대학교의 낭만이자 청춘이다. 더불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나 자신을 알아간다. 어쩌면 성취에 맞춰 들어온 학과 공부보다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느끼고 배우는 무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학교에선 보다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 지원 및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대학 생활은 처음 사회를 경험하는 문이며 그 시작을 함께하기 때문에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인생의 한 페이지로 남는다. 이전 학기까진 몇몇 학과와 동아리만 대면으로 활동하며 모두가 캠퍼스의 낭만을 느끼기 어려웠다. 코로나19 이전의 열기를 되찾아가는 변화에 맞게 그동안 묻혀있던 교내 문제와 동아리 활동이 다시 제자리를 잡길 바란다. 더불어 정상화된 학교생활을 경험하며 학내 구성원 모두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을 쌓길 응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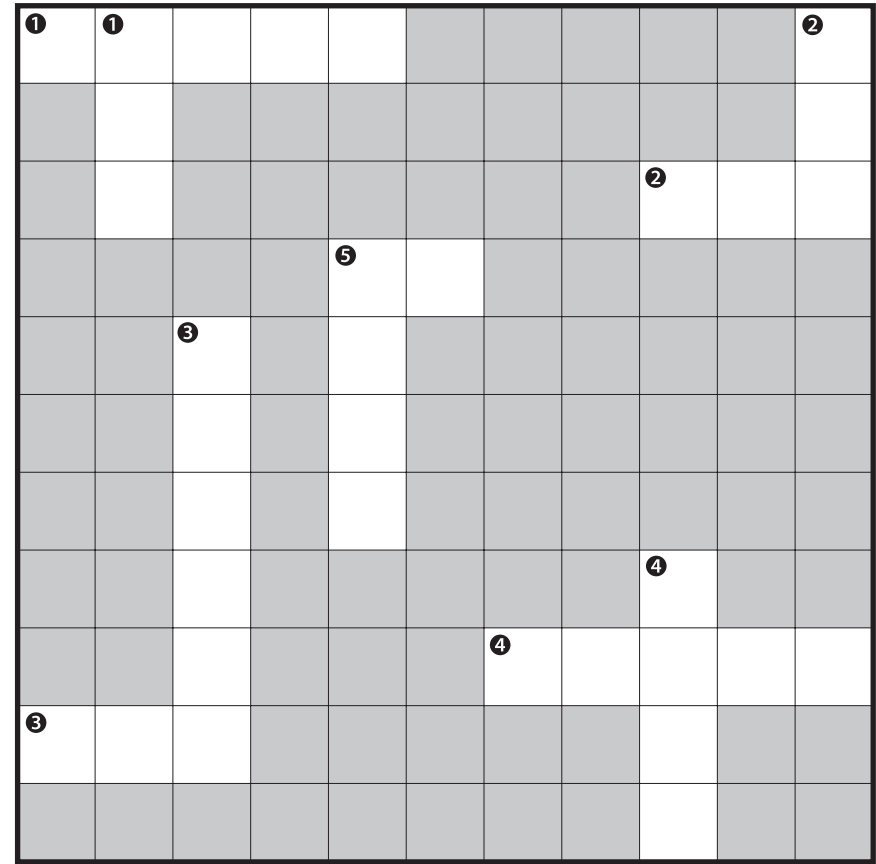
양채은 부장 03chaeun@hufs.ac.kr

외대만평



김현지(일본 · 통일지 18)

십자말풀이



- 가로**
- 우리학교 양 캠퍼스(이하 양캠퍼스)엔 ○○○○○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교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5면 참조)
 - 전세 ○○○이 때때 가격보다 높으면 전세가율이 100%를 넘게 되는데 이를 미치 강동처럼 알맹이가 텅 비었던 듯에서 강동 전세라 부른다. (7면 참조)
 -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오바마홀에서 설캠 핸드볼부와 설캠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 홀스스포츠(Hufsports)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핸드볼부 동문회가 후원하는 '제1회 ○○○ 정탈 교내 핸드볼 대회'가 개최됐다. (2면 참조)
 - 지난 15일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보행자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 차량의 일시 정지 비율이 지난 7월 ○○○○ 개정 전에 비해 15.8%p 증가했다. (5면 참조)
 - 이 협약은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장학제도의 일환으로 대사관 등의 공공기관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이 ○○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면 참조)

- 세로**
- 우리학교 △○○○ 활동의 어려움△학교 측의 공간 대여 방식△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3면 참조)
 - 학교 측에서 동아리 운영을 위해 각 동아리에 지급하는 ○○○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는 대부분 한 해 동안 참가하는 대회 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3면 참조)
 - 지난 12일 주보공이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30세대 청년층이 이번 해 8월 전체 ○○○○○○ 피해자의 74.7%를 차지했다. (7면 참조)
 - 그렇기 때문에 학생식당 운영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문제는 학생이 부담하기보다 ○○○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파악했다. (4면 참조)
 - 설캠 ○○○○ 식당의 식사 가격은 5,500원에서 6,500원으로 1,000원 인상됐다. (4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세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인구 절벽 시대, 대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정부가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줄인다는 소식이다. 올해 2022학년도에 34만 7888명인 교원이 2023학년도에는 34만 4906명으로 감축된다 한다. 이를 두고 논의가 분분한데, 사실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감소 국가다.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이 1.59명인데, 우리나라는 0.81명이다. 인구 감소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이웃나라 일본이 1.33명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50년 후에는 3천 8백만 명이 감소할 것이라니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가설도 가능하다.

이런 아찔한 현실 앞에서 해외의 한 언론은 ‘한국 여성 출산 파업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인구감소 문제를 두고 여성의 결단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회성 출산 장려금을 주는 정책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장려금에 기대어 아이를 낳겠다는 여성은 많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인구감소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문제가 되었고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문을 닫으리라는 위기감이 이미 실감되는 시절, 대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대학의 생존과 관련된 현실적인 자구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치와 역량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학의 역할을 차분히 되짚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 본다. 한 사회가 다음 세대를 기르지 못한다는 것은 지속가능한 삶의 비전을 그 사회가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인구감소는 단순한 소득의 문제도 아니다. 이 질문은 오히려 우리 사회의 잠재적 역량과 가치를 기본에서 되묻는 데서 답을 찾아야 한다. 끝도 없는 거친 경쟁과 일회성의 면피, 혐오와 배제가 난무한 사회에서 누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을까? 이런 곳에서 어떤 건강한 지표들 만들어야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꿀 수 있을까 하는 것 말이다.

미국의 법철학자 마사 너스바움은 《역량의 창조》란 책에서 사회의 평균적 지표들 올리는 것만으로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한다. 다양성과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면서 각자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역량은 한 개인의 타고난 재능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잠재성까지도 통칭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좋은 대학의 졸업장이 미래를 보장한다는 식의 낡은 가치를 좇을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잠재적 역량을 잘 키워 나가는 방향으로 교육을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 △사회적 약자△젠더△장애인△노인△동물의 권리△보살핌의 중요성△환경 윤리△헌법과 정치 구조의 문제까지 직시하는 힘, 사회의 현재적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의 가치를 주도할 수 있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은 그런 이유다.

인구 절벽 시절에 대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그러므로 대학이 개인과 사회의 역량을 재창조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그를 위해 무얼 해야 하는가로 바뀌 물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역량을 공동체의 역량과 연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의 윤리를 강조하는 것이 빅데이터 교육 등 기술적 역량을 키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 즉 스몰 데이터에 근거한 해석 작업 또한 잠재성을 키우는 데 있어 필수적이기에 대학의 인문교육이 감당할 몫은 여전히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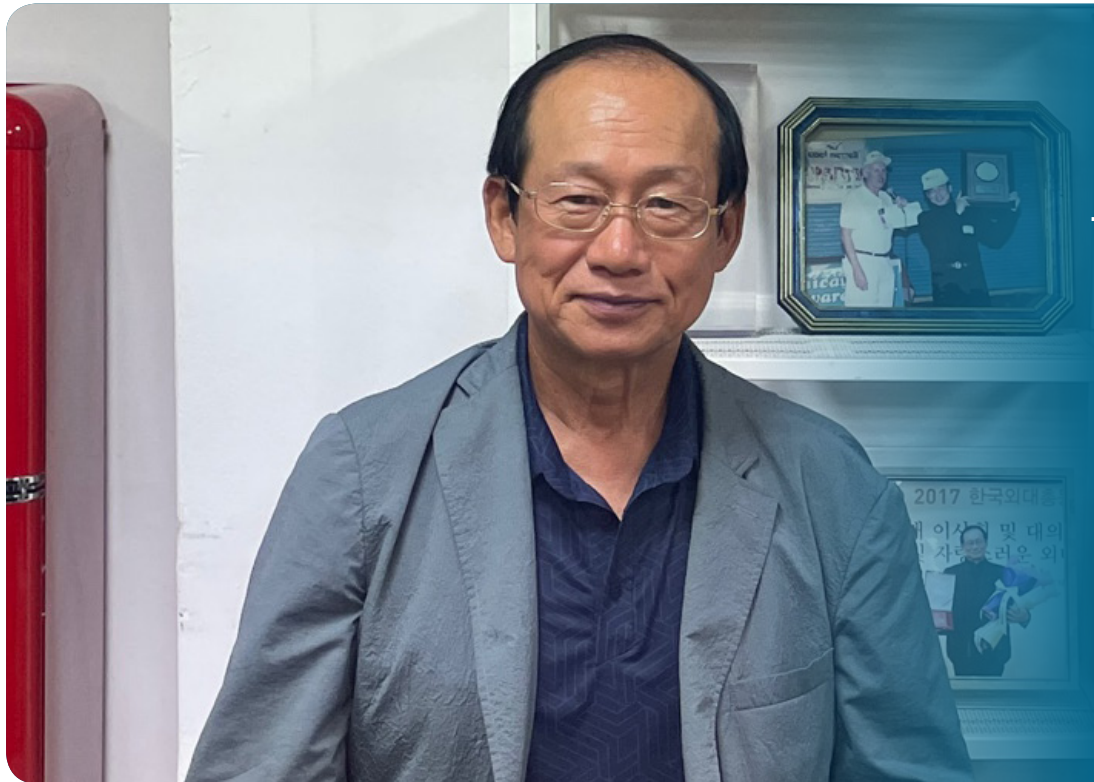
45개의 다양한 언어 안에서 융합 미래교육을 표방하는 우리대학의 가치와 중요성이 여기서 다시 확인된다. 이 주제를 두고 고심하던 금요일 한낮 학보사에 들려 기사를 마감하는 기자들을 만났는데 모두 자기 자리에서 맡은 책임을 다하는 얼굴이 진지하고 환했다. 신나는 일이 많지 않은 시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학생들을 만나니 누추한 일상이 빛으로 환해지는 느낌이었다. 그 빛은 내 개인의 열망을 공공의 책무와 맞추어 나가는 조화에서 나온 것이었다. 학생과 교수자의 개인적 역량이 공동체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면서 이 사회를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 어떤 위기 앞에서도 대학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교육의 비전이 자 가치이다.

·정은귀(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나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3raesa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정은귀
편집장 장래산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무역을 통해 세계를 잇는 이영우 한길통상 회장을 만나다

이영우(동양어·마인어 68) 한길통상 회장은 지난 1983년 무역회사 '한길통상'을 설립해 현재까지 40년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한길통상은 해외 각지에서 유명한 가정용품 기업의 물건을 수입해 전국 87개의 △대형할인점△백화점△홈쇼핑 등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와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첨단과학 장비 기업과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이를 우리나라 기상청과 남극 세종기지 등에 납품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세계적인 기업 사이 창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이영우 회장을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1968년 입학 당시 인도네시아는 정치적인 중립국으로서 주변국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지정학적으로 가깝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죠. 우리나라의 인력과 인도네시아의 자원이 융합되면 장차 사회 진출과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우리학교 입학을 결심했습니다.

Q2. 우리학교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이 현재 무역 업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선 영어실력이 중요했어요. 저학년 땐 전공 언어인 말레이·인도네시아어를 열심히 공부했지만 사회에 진출할 시기가 됐을 무렵부터 영어 학습에 집중했습니다. 단어 공부를 성실히 하고 영자신문 타임지(TIME)를 이용해 학습하며 영어에 자신감을 쌓았죠.

더불어 부전공으로 경영학을 선택해 △경영△무역△회계를 공부했습니다. 이후 경영학을 공부하며 얻은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항공 자재부에 입사해 근무했어요. 미국 현지인들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미국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무역 실무 경험을 쌓아나갔죠. 이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업계에서 가장 견고한 회사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학업적인 측면 이외엔 음악을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클래식 음악과 팝(POP) 음악을 좋아했고 대학교에 입학한 뒤엔 특히 이탈리아 가곡을 많이 듣고 불렀습니다. 음악에 관한 관심은 사업적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됐어요. 현재 이탈리아를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의 기업들과 사업을 진행하는데 업무가 끝난 후에 갖는 사석 모임에서 당시 연습했던 가곡을 부르며 현지 기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문화를 잘 알고 있던 게 무역 계약을 수월히 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Q3. 무역 업무를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며 많은 성장을 했지만 늘 개인 사업을 하길 원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무역 회사 직원들을 만나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는데 모두 저보다 영어가 서툴렀어요. 대학 시절부터 오랜 시간 공부하며 쌓아온 영어 실력과 회사에서 일하며 얻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무역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타자기와 같은 사무용품을 수입해 우리나라에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무역 회사의 기틀을 서서히 마련했어요.

Q4.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에서 유명한 기업의 가정용품을 수입해 우리나라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역 품목 중 가정용품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가정용품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대한항공에서 주로 항공과 관련된 △기계△부품△장비 등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 상품을 납품했지만 당시 우리나라 시장에선 이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어요. 해당 상품을 판매할 기회가 많지 않아 단일 품목으로만 회사를 운영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이에 우리나라에 수요가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가정용품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에서 근무할 당시 쇼퍼센터에서 다양한 가정용품이 판매되는 걸 봤는데 실생활에 쓰임새가 많지만 우리나라엔 팔지 않는 물건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좋은 상품이 될 거란 확신을 갖고 가정용품 품목과 제작 회사를 조사해 이후 우리나라에 돌아와 해당 가정용품을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Q4-1. 미국의 솔라라이트(Solar Light) 등 해외 첨단과학 장비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우

리나라에 여러 과학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용품과 다른 종류의 품목을 납품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대한항공에서의 경험이 있어 첨단 장비로의 사업 확장이 비교적 수월했어요. 우리나라엔 첨단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많지 않기에 대학교나 연구소에서 장비를 수입해달란 요구를 자주 받았죠. 현재 수입하고 있는 솔라라이트 등의 첨단 장비 품목은 우리 회사가 독점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여오고 있습니다. 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도 무역에 대한 △경험△노하우△이해를 통해 무역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Q5. 여러 나라와 사업을 진행하며 겪은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나라와 회사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때때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약속한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무역 업무에선 정해진 시간에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상호 간의 신용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무역을 진행하는 회사와의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하죠.

1997년엔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찾아오면서 많은 무역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당시 무역을 하며 쌓아온 경험과 신뢰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회사가 오히려 성장할 수 있었죠. 어떠한 분야든 항상 공부하며 미래를 대비해야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던 깨달음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Q6. 우리학교 동문 모임인 '국제무역인클럽(International Trade Club)'에서 회장을 역임하고 '한길 장학금'이란 이름으로 매해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졸업 후에도 우리학교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학창 시절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 힘들게 학업을 지속했

습니다. 이에 학창 시절의 저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예전부터 장학금 기탁을 생각해 왔어요. 국제무역인클럽 회장을 역임하며 우리학교의 소식을 많이 접했고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던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한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에 장학금을 기탁하기 시작했고 이번 해엔 이를 더 확장해 '한길 장학금'이란 이름으로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Q7.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업을 통해 단순히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선의를 베푸는 회사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사업을 키워 큰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사업을 보람되게 운영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을 적절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겠죠. 이외에도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에게 여러 지원을 제공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Q8. 무역 관련 업계에 종사하길 희망하는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처럼 천연 자원이 부족하지만 인적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무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국가의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에 성공적인 무역 업무를 위해선 영어를 비롯해 뛰어난 수준의 외국어 실력이 필요하죠. 또한 각국의 △관습△사회△정치 등을 이해해야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 꾸준히 노력한다면 우리나라 무역인의 무대는 전 세계 각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움계좌개설
계좌개설도 스마트폰으로

주식
영웅문S

선물옵션, CFD
야간선물옵션
영웅문S Futures+

키움 유튜브
슬기로운 투자생활

키움 ISA
수익률! 편리한 가입!

펀드, ELS 등 금융상품
키움자산관리

해외선물, FX마진
미국주식, 중국주식
영웅문S Global

키움 블로그
투자상식에서 시장, 리포트까지!

키움 페이스북
매일매일 투자이슈를 쉽게!

키움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1-03032호 (2021.10.18~2022.10.14)

가장 빠른 모바일 투자 키움증권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주식, 선물, 옵션거래)에 대하여 키움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진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주식, 선물, 옵션거래, 펀드, ETF, ETN, ELW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주식, 펀드, ETF, ETN, ELW)은 자산가격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이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상품(선물, 옵션거래)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계좌 잔고나 유지종가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이 강제 청산될 수 있으며 유익하지가 바랍니다. 선물 수수료는 0.003%, 개별주식선물 수수료는 0.006%이며, 기타 수수료 관련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FX마진거래는 위험수준이 없으나 매매 시 호가 스프레드 등의 거래비용이 발생합니다. 집합투자증권에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CFD 거래는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고액한 거래 가능하며, 정의 거래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결제불이행, 파산 등)에 따른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CFD 주식수수료(0.15%) 및 금융비용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예금보통계좌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해서만 예금보험공사가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별도의 보수 또는 수수료(0.2%~0.8%, 모뎀포토콜리오펀딩 상이)가 발생합니다. 주식거래수수료는 0.015%이며, 기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문투자자는 투자권유 규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RP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 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은 발행사의 신용위험(부도 또는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B 각각 +, 0, - 순으로 구분됩니다. 국내 법령 또는 조세협약에 따라 주어지는 과세혜택 및 과세기준, 과세방법은 향후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약 및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계약으로서 투자자는 일임업자에게 일임업자가 사전적으로 제시한 운영방법을 변경요구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펀드(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에서 손실 발생 시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